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한성욱

오전 11시

교회소식

선교기도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주일예배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6월의 선교사를 위한 기도

오구원(C국)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찬 286)

다같이

죽임 당하신 어린양

그 사랑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

빌립보서 2:1-5

늘 지켜주시리

“하나되어”

웁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찬 516)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6월의 선교사는 오구원 선교사(C국)입니다.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 다음주일(6/13)은 교회창립주일 (7주년)이며, 성찬주일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빵과 포도음료를 준비하셔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다음주일(6/13)에 장로임직식이 있습니다.
5. 5월 한 달 동안 한울림교회 비전과 예배당 건축 완공을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를 잘 마쳤습니다.
6. 새 예배당 준공검사를 마치고, 사용허가를 받아 속히 입당하도록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건축헌금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계속 정성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7.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 대응을 위한 책자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 한권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핫라인 전화번호: Tel. 646-450-8603
8.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9.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6월은 한 해의 절반을 바라보는 달입니다.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21년의 반환점이 되어갑니다. 살같이 빠른 세월을 알면서도 새삼 빠르다 생각하는 시점입니다. 6월에는 “이 달의 선교사”로 오구원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오구원 선교사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구원 선교사, 이루다 선교사는 C국 T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20 여년을 현지에서 사역을 하던 중, 추방당한 후 현재는 서울에서 신학 공부를 하며, 재입국을 준비하며 중국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평신도였던 선교사가 목회자 선교사로 준비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일예배 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6월의 선교사 오구원 선교사를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예정대로라면 6월 첫 주일에 가서 뵈어야 했지만, 몇 가지 상황으로 한 주 연기되어 6월 10일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다음날인 금요일 새벽기도회부터 제가 인도합니다. 주일예배는 다음 주일(6/13)부터 현장에서 뵙게 됩니다. 그동안 서울에 도착 후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보내고, 선교단체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주는 2년 전 수술한 것에 대해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한 주만 더 살펴보자고 해서, 한 주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미국에서보다 몸이 빨리 지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에게 말했더니, 그 이유를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몸이 미국 생활에 익숙해서, 한국 생활을 여러모로 불편하게 느껴서 더 빨리 지치는거야.” 이 말이 맞고 안맞고를 떠나 그 말을 듣고 울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내가 태어나 살던 땅인데, 내 몸이 미국 생활에 더 익숙해졌다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이어졌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빌 3:20)”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야할 곳인데, 혹시 내 삶이 이 땅의 삶에 더 익숙해져 버린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서울이든 뉴욕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사는 곳에 익숙해져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결코 이 땅의 사람으로 익숙한 삶을 살아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날 수 밖에 없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이 땅에 거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다음 주에 뵙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